

2012. 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2.8.28	대전MBC 대회의실	10/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전체 참석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정종건 기획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11	1	-	17	-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6	11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기타	세종시 교통문제 등 현안문제 보도	세종시 교통문제 등 현안문제 보도	7월
보도	교양 프로그램 '아침이 좋다' 타 계열사 제작물 엄선하여 방송	'아침이 좋다' 타 MBC 계열사 제작물 엄선하여 방송	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충청권 MBC 계열사 상호간 뉴스 교환은 좋다고 본다. 단 지역에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뉴스로 선별해주시기를 바란다(김영광).	지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টে을 선별하여 방송하겠다.	수용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의 새로운 여MC 신선하고 호감이 간다. 프로그램 장악력은 떨어져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김영광).	토론 주제에 대한 숙지도를 높여 프로그램 장악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의견참고
보도	서울 뉴스를 자르고 뉴스데스크 대전 충남 편이 방송될 때 가끔 매끄럽지 못하다. 끝나고 서울로 넘길 때도 매끄럽지 않다. 이에 대한 시정이 있기를 바란다(김영광).	생방송 진행이라는 뉴스 특성상 한계가 있으나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의견참고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 8월 15일 주제가 '지방은행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3명의 패널이 출연했는데 모두 지방은행 설립에 긍정적인 패널로 이루어졌다. 반대 입장의 목소리도 있어야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생명력이 살지 않겠는가? 출연자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박희원).	주제 특성상 찬성 쪽은 명분이 뚜렷한 반면 반대쪽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 패널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잘 참고하여 섭외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건강플러스> 방송 중반, <살 맛 나는 세상> 방송 초반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안내자막이 갑자기 나왔다. (박희원).	아날로그 종료 안내 자막은 의무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내용으로 HD 시청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8월 10일 내용인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 시민단체의 반대의견과 마케팅공사측의 설명이 균형 있게 다뤄졌다. 8월 17일 <4대강 살리기>는 보 건설이후 유속변화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문제를 다루었는데 당초 목표인 홍수 피해 예방, 수질개선 효과 등도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여서 비교하여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긍정적, 비판적 시각 등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결국 시청자가 판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김명수).	좋은 평가에 감사한다. 4대강 살리기의 경우는 시행 관공서의 답변 회피로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시간을 배분해서 담지 못한 감이 있다. 내용상으로는 양측의 의견을 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분발하겠다.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8월 17일 <건강플러스> 치주질환 예방편이 방송되었다. 남녀 MC의 상호 역할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두 MC간 역할분담을 사전에 잘 협의하여 진행해야겠다(김명수).	여자 MC의 진행이 다소 미숙한 감이 있어 개선해 가겠다.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 8월 24일 <지체장애우들의 이동권 문제점>이 방송되었다.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대전시청 담당자의 평이한 인터뷰를 담는 것보다 간부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의지를 직접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한찬희).	실무자의 의견을 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예산문제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담았어야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유사한 주제를 다룰 때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8월 10일 <기대와 우려, 엑스포 과학공원의 변신> 대규모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례를 여주 아울렛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학공원 사례와의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물류센터 조성이 어려워지자 아울렛을 조성한 사례이다). 과학공원 보다는 오히려 관저지구 유니온스퀘어 사례와 견줄만하다. 단순히 대규모 복합 쇼핑센터가 도입된다고 해서 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오덕성).	엑스포 과학공원 문제는 담담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여주 아울렛은 관저지구와 비교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8월 24일. <끝이 없는 싸움인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주제에 대중교통에만 집중되어 다루고 있다.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개념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이동 및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외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기 바란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쏟기를 바란다(오덕성).	장애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사플러스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지적대로 이동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했어야 한다고 본다. 좋은 지적이다. 제작에 반영하겠다.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 8월 10일 <기대와 우려, 엑스포 과학공원의 변신> 대규모 위락시설이 150만 인구의 대도시 도심 한복판에 입지하고 있는지 전례가 궁금하다. 엑스포 과학공원의 입지가 대전의 상징적 공간인 이상 그 공간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쇼핑공간이 입주하는 것이 대전의 도시品格과 관련되어 비판이 제대로 담아 있지 않	과학공원 문제는 시에서 시민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의견참고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p>아 아쉬움이 남는다.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과학공원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장기적 수요를 견인하고 공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장기적 비전이 제대로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조명해야 한다(장동환).</p>		
교양	<p>시사플러스 <4대강 살리기 그 후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 시설 미활용, 자연생태계 및 환경파괴, 향후 관리비 지속적 투입 필요성 등을 쟁점별로 잘 짚어냈다. 녹조현상이 공사가 잘되었다는 여주보 사례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비교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보의 문제점이 발견될시 보 가동중지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지만 보 철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라도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김경숙)</p>	<p>지역에서는 사실상 4대강 문제에 관한 첫 심층보도인바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p>	의견참고
보도	<p>생방송 토론마당 8월 15일 <지방은행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경우 진행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게스트들의 논점을 잘 드러내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여MC는 주어진 대본대로만 진행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질문과 다른 요지의 대답을 하는 토론자에 대하여 순발력 있게 개입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한발 늦은 모습이 안타깝다(유덕순).</p>	<p>사회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토론 주도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p>	의견참고
교양	<p>시사플러스 8월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그 후 금강은?>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남자 내레이터 목소리가 다소 울드하고 딱딱하고 엄숙한 느낌을 받는다. 녹색연합 관계자 위주의 인터뷰 내용 삽입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문제인식, 반대입장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다(송인덕).</p>	<p>지적에 공감한다. 책임있는 정부기관 담당공무원의 문제의식 등을 취재하고자 했으나 취재거부로 그들의 의견을 듣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p>	의견참고
교양	<p>건강플러스 8월 17일 <치주질환과 예방치과> 남자진행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복장은 눈에 거슬린다(송인덕).</p>	<p>남자진행자 의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p>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스포츠	제10회 MBC 꿈나무 축구리그전국결선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언론 기능에 충실한 방송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지역자체제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송인덕).	꿈나무축구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계방송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새로운 대회 발굴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의견참고
교양	파업과 올림픽 특별방송의 종료시점에서 대부분 편성시간이 정상화되고 있어 반갑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요일별, 주제별, 섹션별 편성이 다채롭게 이루어져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치밀한 기획과 고품질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속하여 생산해 주기를 바란다(김형주).	좋은 평에 감사드리고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코너 발굴과 아이템 개발로 더욱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수용

2012. 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2.9.25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장동환 위원, 송인덕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2	10	7	1	1	19	-	2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10	-	2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 건	6 건	
보도	충청3사 뉴스교환, 지역에서 공감대 가질 수 있는 뉴스로 선별	충청 3사 뉴스 교환시 우리지역에서 공감대 가질 수 있는 뉴스 선별하여 송출	8월
교양	'건강플러스' 남녀 MC 상호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건강플러스' 남녀 MC 역할분담 하여 진행	8월
교양	'시사플러스'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명과 관심 지속적으로	소재선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조명 계속적으로 함.	8월
교양	'시사플러스'에서 균형적 비판과 대안을 모색해야	이슈에 대한 균형적 비판과 대안제시 모색함.	8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남녀MC 의상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교양 프로그램 남녀MC 의상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함.	8월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요일별, 주제별, 섹션별 코너 다채롭게 구성	'생방송 아침이 좋다' 요일별, 주제별, 섹션별로 코너 구성 다양하게 함	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건강플러스”의 건강관련 음식코너에서 가능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요리법이 소개되면 좋겠다(박희원)	시청자들이 건강과 관련된 음식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겠다.	편성수용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은 전문가 위주의 토론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반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박희원)	시민패널 참여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대전MBC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적다.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특화하여 제작해보면 어떨까?(박희원)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개편 때마다 계속 논의되지만 학교의 비협조, 공부 일변도에서 쉽진 않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대전 충남 뉴스를 전국방송한 후에 동일한 뉴스가 다시 지역뉴스로 똑같이 취급한다. 동일한 뉴스가 지역뉴스로 다시 처리될 때에는 편집 방법을 조금 다르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박희원)	동일 뉴스 시간대에 전국에 방송되는 리포트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스트레이트로 재작성하겠다.	보도수용
교양	신설 프로그램인 “토크 앤 조이” MC와 게스트의 좌석 위치가 다소 불안하다. 연단이 다소 높아 MC가 권위적으로 보인다(김영광)	3회 때부터 MC와 게스트의 좌석을 바꾸었다. 계속 합평회를 통해 안정이 되도록 하겠다.	편성수용
스포츠	대전MBC의 스포츠 중계가 취약하다.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캐스터에 있어서 김학선 아나운서를 제외한 다른 캐스터들은 중계전달이 약한 느낌을 받는다. 캐스터 교육을 강화하길 바란다(김영광)	HD중계차가 확보된 만큼 스포츠 중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캐스터 교육도 강화하겠다.	편성 수용
보도	뉴스 프로그램 타이틀에 대전, 충남, 세종을 같이 언급한다. 자막처리도 같이 하더라도 멘트에서조차 세종을 넣어야만 하는가?(김영광)	세종시 출범 초기인 만큼 세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종시’를 언급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뉴스데스크를 보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 시 남자 앵커만 한다. 여자 앵커도 마무리 멘트가 있으면 좋겠다(김영광)	시정하겠다.	보도수용
보도	기획 뉴스를 분석해보면 세종시와 대전시의 이슈 처리에 차이를 느낀다. 세종시는 장점 등을 상세히 다루는 반면 대전시는 문제점과 비평위주로 다룬다. 지역에 차등을 두지 말고 사안과 관련하여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오덕성).	세종시를 강조하다보니 대전시 등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보도의 “서울대 세종시 이전”을 보면 내용이 없는 뉴스였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우리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의제이고 심층적 취재와 진단이 필요한 뉴스아이템인데 단순 소개하는 식으로 끝났다. 아쉬움이 컸다(오덕성).	추후 보강 취재를 통해 실현 가능성 등을 자세히 보도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다루는 진행자의 모습이 다소 흥분되고 경직되어 있었다. 시청자들과 방송내용을 교감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MC가 흥분되면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오덕성).	경험이 적은 새로운 진행자이기 때문이다. 아나운서들이 발성, 억양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점점 신뢰가 되는 진행자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고 있다.	편성 수용
교양	대전MBC 프로그램을 보면 생활밀착형 콘텐츠가 약하다고 본다. 시청자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노후 문제는 어떻게 준비 하고 있는지, 청소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유덕순).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시사플러스’ 등에서 생활밀착형 아이টে을 가끔 다루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대전MBC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를 원한다. 시험에 찌든 학생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계차 탐방 성격이든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든 제작되었으면 한다(유덕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개편 때마다 계속 논의되지만 학교의 비협조, 공부 일변도에서 쉽진 않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학교, 학생, 부모들이 모두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강구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은 일단 재미가 없다. 토	자막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	보도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에 장치가 필요하다. 패널 섭외가 중요하고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 주제에 대해 자막으로 자주 소개하여 현재 무슨 내용이 방송되고 있는지 게스트들은 누구인지 자막으로 자주 소개될 필요가 있다(유덕순).	아보겠다.	수용
편성	대전MBC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 보다는 주변시간대에 배치되어 있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주변화현상이 심각하다.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을 일반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김명수).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게끔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편성	“생방송 토론마당”을 보면 주제선정과 패널 선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토론주제와 더불어 상이한 의견을 가진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은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편성시간대 또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저녁 7시간대 퇴근시간과 맞물려서 방송되어 편성시간대를 바꿨으면 한다(김명수).	편성 시간대 변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보도, 편성 의견참고
기타	홈페이지에 종영 프로그램과 현재 방영중인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다. 종영 프로그램과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김경숙).	종영 프로그램과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 분리하여 정리하겠다.	경영 수용
보도	“생방송 토론마당”에서 충청권 정치지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패널 출연자를 보면 정당인 3명과 전문가 1명이었는데 정당 출연자는 국회의원이 출연했어야 토론 내용이나 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었다고 본다. 진행자는 토론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숙하다(김경숙).	출연자 섭외와 진행자의 숙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프로그램(시사플러스)에 인터뷰한 대학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시간강사인데 대학교수로 소개되어 해당학교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직함을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경숙).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 정확한 직함을 표기하도록 제작진에게 전달하였다.	편성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보도</p>	<p>“생방송 토론마당”에서 주제로서 자살을 다루었다. 주로 노인층, 장년층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청소년, 학생들 자살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한찬희).</p>	<p>청소년 자살문제를 프로그램에서 다룰 것인지 검토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보도</p>	<p>뉴스룸이 새롭게 바뀌어 좋아보인다. 조명이 밝아졌고, 세트도 좋아보인다. 뉴스 내용도 ‘뉴스 인 뉴스’와 같이 기획코너가 있어 충실해지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저조하여 안타깝다. 이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한다(김형주).</p>	<p>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뉴스, 시청자들과 공감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p>	<p>보도 수용</p>

